

광주 극장가 '지각변동'

광주 극장가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광주에 처음으로 아이맥스 영화관이 들어서는가 하면 광주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었던 엔터시네마가 지난달 문을 닫았다. 또 각 극장들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설 업그레이드, 이벤트 확대 등 관객 잡기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현재 광주의 스크린 수는 89개(CGV 광주터미널점 포함). 지난해 관객은 약 545만명이었으며 2009년 4월까지 관객은 약 160여만명이다. 2~3월 고전을 면치 못했던 극장가는 '그림자 살인' '박쥐' 등 화제작이 쏟아진 4월부터 숨통이 트인 상태다.



광주에 처음으로 아이맥스 영화관이 들어서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극장마다 시설 업그레이드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CGV터미널' 호남 최초 아이맥스관 등 9개관 오픈

엔터시네마 폐관·상무CGV '메가박스 상무'로 변경

치열한 경쟁 속 조조할인·시설 교체·다양한 이벤트

문 열고 문 닫고

오는 20일을 전후해 유스퀘어 문화관에 문을 여는 CGV 광주터미널점은 CGV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다. 호남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360석 규모의 아이맥스관 등 9개관, 2천여 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관이 디지털관이다.

영화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아이맥스 영화관에서는 '스타트랙'을 상영할 예정이며 오픈 후 '아이맥스 영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 시사회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멀티플렉스 엔터 시네마는 지난달 문을 닫았다. 5개관으로 문을 열었던 엔터시네마는 타 멀티플렉스들이 등장하면서 관객 동원에 한계를 느껴왔다.

2007년 밀리오레 시네마 영업을 중단했던 무등시네마는 최근 별관 형태로 운영하던 9관을 폐쇄하고, 현재 8

개관만 운영중이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스크린 수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시네마는 현재 금전적인 문제로 국내 최대 배급사인 CJ가 제작·배급하는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객 동원에애 먹고 있다.

4월 최고 티켓사이었던 '그림자 살인'을 비롯해 '박쥐', '스타트렉' 등 영화제작을 상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의 극장이 지난해에 비해 관객이 늘었지만 무등시네마는 관객이 줄어 고전 중이다.

개점 후 매년 100만명에 육박한 관객을 모으며 해마다 지역 멀티관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던 CGV 상무점은 직영점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호를 바꿔 달았다.

지난 1일부터 메가박스 상무(광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현재 메가티즌 신규 회원에게 5천점을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씨너스 전대점은 대학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으로 선전하고 있는 반면 문화지구에 위치한 하마시네마 10 역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며 무등시네마 첨단점을 지난해 문을 닫았다.

▶시설 경쟁, 다양한 이벤트
CGV 광주터미널점의 개관으로 가

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상무지구에 위치한 극장들이다.

10개관을 운영하는 콜롬버스 상무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1천980개 좌석(개당 15만 원)을 교체했으며 6월 4일까지 의사 교체 기념 이벤트로 팝콘을 무료 증정중이다.

또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을 감안, '몬스터&에이리언' 더빙판을 상영하는 등 가족용 프로그램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올 안에 5개관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내권 극장들의 조조 관람료가 5천원인 데 비해 콜롬버스 상무점과 메가박스 상무점은 4천원을 받고 있으며 CGV 광주터미널점 역시 4천원으로 책정했다.

메가박스 광주점은 최근 전국에서 최초로 9개관 전관에 디지털 영상기를 설치했으며 무인발권기(ATM)도 설치했다. 또 통신카드 할인 서비스 도 개발, TTL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 시네마 역시 올해 애니 디지털 영상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제일시네마 등도 엔젤리너스 커피 등과 제휴를 강화하는 등 관객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무등시네마는 타 관에 비해 스크린이 작은 7·8관 이용 고객에게 특별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그밖에 지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은 차별화된 영화로 관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 54회 호남예술제 입상자

발 레

▲동상
5 박민경(한울2)

◇ 초등부 군무

▲ 금상

2 정소영(14명(한울2~6))

▲ 은상

1 밴유우(6명(한울2~6))

◇ 중등부 독무

▲ 금상

5 배윤정(대성여자2)

7 흥서현(대성여자2)

▲ 은상

4 김지은(윤암1)

6 정유정(월곡2)

▲ 동상

3 김희주(대성여자1)

◇ 고등부 독무

▲ 은상

1 김희라(광주승일1)

▲ 동상

2 김아람(광주승일1)

현대무용

3 신연주(대성여자2)

5 김강민(광주동성3)

8 정희은(동아여자3)

▲ 동상

1 홍소운(대성여자2)

4 박나희(동아여자3)

◇ 중등부 군무

▲ 금상

1 홍서현의 12명(대성여자1~3)

2 정유진(유안6)

◇ 고등부 독무

▲ 은상

1 조은교(광주수피아여자2)

3 안소정(광주수피아여자2)

5 김린희(광주수피아여자3)

◇ 고등부 군무

▲ 최고상

1 조은교의 6명(수피아여자2~3)

3 김소미의 12명(옥과3~3)

▲ 동상

1 김유경의 7명(송정서2~6)

◇ 중등부 독무

▲ 금상

2 김솔이(대성여자2)

6 이주해(동아여자3)

7 김아현(목포영화3)

▲ 은상

※ 최고상 수상학교는 컬러단체

사진 2매를 5월 19일까지 본사 문화홍보국으로 제출바랍니다.

장애인 '인권아카데미'

5~7월 광주시의회 회의실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

(상임대표 백순영)가 '인권아카데미'

를 개최하고 있다.

5월부터 7월까지 세 달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장애인 인권관련 전문가를 초청,

총 6회의 강연으로 이뤄졌다.

지난 11일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광주지역장애인운동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25일에는 유영미씨가 '부모운동의 사례'를 6월 11일에는 표경숙씨가 '지적장애인 지역사회안에서 살아가기', 6월 22일에는 임상만씨가 '장애인의 권리와 선택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524-770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종일 '순수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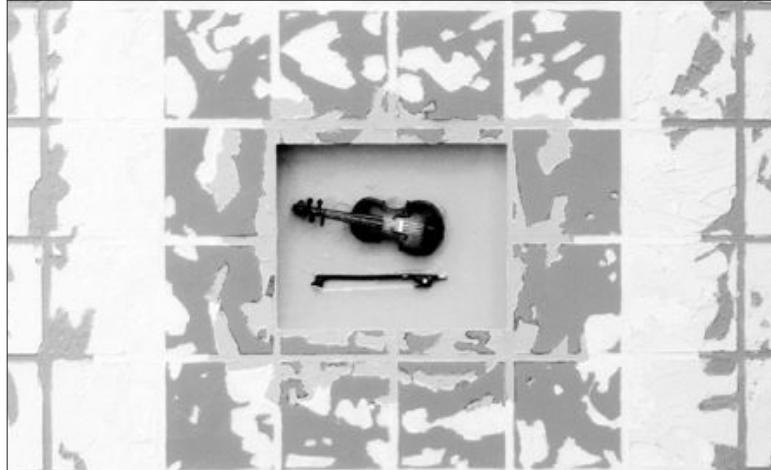
14~20일 광주신세계갤러리



'Return to innocence' 연작을 선보인다.

독특한 질감과 구성미가 돋보이고, 검은색과 대비되는 밝은 색을 과감하게 사용해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낸 작품들이다.

미술평론가 장준석씨는 "그의 작품에 드러난 함축적이면서도 단순한 시각적 의미는 각박한 현대인의 마음을 정화하는 순수로의 회귀를 느낄 수 있게 한다"고 평했다.



그는 흥의대 미대와 중앙대 대학원 출신으로 개인전 20회, 스페인 비엔날레, 한국현대미술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제2회 북경 비엔날레 등에 참가했다. 광주시·전남도전 심사위원, 전남대 예술대학장을 역임했다.

이번 전시는 '그림자 살인' '박쥐' 등 작품으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던 멀티플렉스 엔터 시네마는 지난달 문을 닫았다. 5개관으로 문을 열었던 엔터시네마는 타 멀티플렉스들이 등장하면서 관객 동원에 한계를 느껴왔다.

2007년 밀리오레 시네마 영업을 중단했던 무등시네마는 최근 별관 형태로 운영하던 9관을 폐쇄하고, 현재 8

'저고리 드로잉' 공모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비엔날레재단은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18일~11월 5일) 주제전 '웃' 섹션에 전시할 '저고리 드로잉'을 공모한다.

'천(千)'의 시선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저고리'라는 주제로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이며, 수상작은 7월 10일에 발표된다.

대상(1점)은 상금 250만원 및 전시물 제작, 금상(1점)은 은상(2점) 등장(4점)에는 상금 200만원, 150만원, 60만원씩의 상금과 전시물 제작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062-608-4234.
/오픈류기자 kroh@kwangju.co.kr

(주)국민법률경매

* 서구청 옆 광주세무사전운5층

서울·경기·광주·전남 경매

062)351-8240 H.P 010-7203-1100

아파트					
구	소재지	면적(m²)	김정가	최저가	
광산구	신동면	112	1억3천5백	9천4백	
비아동	하남로	813/338	8천9백	8천9백	
비아동	하남로	79	6천5백	4천6백	
운남동	주공4단지	85	6천3백	4천4백	
소수동	이지스워트	85	9천5백	6천6백	
월계동	월계동	112	1억2천8백	8천9백	
	첨단상용	95	9천5백	6천6백	
송현동	리인차	75	5천3백	3천7백	
도산동	우이	79	5천9백	4천1백	